

한나라당 공천경쟁 3명으로 압축

통합민주당 19일부터 23일까지 공천신청 접수중

4.9총선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에 대해 2월18일 1차 면접심사 결과 고조홍 현 국회의원과 김영우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 부팀장, 차상구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한 3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20일 전후해 실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을 외부 2곳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 결과 박운국 전 포천시장이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이 지역정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차 공천심사를 통과한 고조홍 예비후보는 자신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명분과 합리성, 진실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여론조사를 해 봐도 자신이 가장 앞선다고 말하고 타 예비후보들이 약성투머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기 때문이지 공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 고조홍 예비후보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왔고 지역활동을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 대한 비전과 경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말로만 일하는 것



장명재 (통합민주당 · 46세)



고조홍 (한나라당 · 55세)



김영우 (한나라당 · 41세)



차상구 (한나라당 · 54세)



박운국 (무소속 · 51세)

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1차 면접은 당 방침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공천심사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영우 예비후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3배수에 포함된 것으로 인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진행될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김영우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공천에 반영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 정책경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면접 과정에서 김 예비후보는 1차 면접에서 공심위 위원들에게 대안기간 동안 포천지역 선출후보와 동기들과 포천시연천군에 관한 지역현안문제를 파악했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포천연천지

역이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고 민관군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차상구 예비후보 또한 한나라당 공천심사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차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추세가 범주계 인사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론으로 알고 있고 공천을 신청한 공인회계사 출신 대부분이 2배수 혹은 3배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상구 예비후보는 "2008년 이후 실시 예정인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를 감안하면 700만 동포 가운데 300만명 이상을 한 나라당에 끌어와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30여년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교포사회를 잘 알고

미국내 지도층 인사와 인맥이 있는 사람을 한나라당에서도 공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박운국 예비후보는 "공천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중앙당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중앙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박운국 예비후보는 다른 정당으로 옮겨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정당으로 옮기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당선되면 본래 내 자리인 한나라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시 당선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50% 이상이다"면서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 없이 한나라당 공천만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은 선거역량을 기록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민주당은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공천신청을 받는다. 또 24일부터 공천심사를 실시한 후 3월10일경 통합민주당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민주당의 유일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명재 예비후보는 "이번주에 공천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당 기여도와 3년간 지역관리를 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공천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장명재 예비후보는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는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력이 필요하다"면서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만큼 호남지역의 폭발적인 지지층 확산이 수도권과 서울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㉓

선출직 척사대회 마지막해 참석

17일 하루에만 51건 윗놀이가 진행

요즘 선출직 공직자들은 척사대회나 마을단위 초청장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설 연휴를 전후해 시작한 각 마을별 척사대회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 진행된다. 초청한 마을은 많은데 어느 마을 척사대회에 참석할까 고민한다. 그렇다고 마을이장이나 읍면동 단위 단체장 명의로 보낸 초청장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민속명절인 설을 전후해 시작한 이 같은 척사대회는 오는 2월24일까지 계속된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척사대회 초청은 대부분 초청장이나 휴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일요일이었던 17일에는 포천시 관내만 하더라도 51개 마을에서 척사대회가 진행됐다.

초청장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너무 많은 곳에서 척사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전체 마을을 방문할 수는 없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한다. 또 "선거구 주민들이 초청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좋은 소문이 난다"면서 "이런 눈치 저런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척사대회는 주요 각 마을단위로 진행되지만 읍면동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도 많다. 선출직 공직자들을 초청하는 경우에 참석할 마을주민 인원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

49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별 혹은 단체별 척사대회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정과 마을을 순회하며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마을단위로 개최되는 척사대회는 유권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참석하려고 하고 있다.

모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대부분 척사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오전 일정은 척사대회에 참석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다"면서 "척사대회에 가서 보면 참석할 마을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 모여있는데 입후보 예정자들을 부르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척사대회는 윗놀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회(軀載)라고도 한다. 이는 삼국시

대 이전부터 전해오는 한국 고유의 민속놀리로 대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진행된다. 한해 동안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들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전통놀이이다.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들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에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마을단위 행사에 초청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마을행사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초청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모 시의원은 "선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다. 척사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의원은 시장방향을나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너무 많은 마을에서 초청했지만 대표성이 있는 몇 곳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민원현장에 간다"면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참석하지 못한 마을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한 예비후보는 "요즘 너무 바빠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에 가야하고 지역에서는 유권자를 접촉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천시와 연천군에 관한 정책연구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생각할 틈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포천이 임박해짐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너무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참모들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에 실시될 포천시장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도 마을단위 척사대회에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모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마을마다 개최되는 척사대회에 모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척사대회에 참석하려면 주민들에게 음료수나 술을 제공해야 하는데 선거법상 그럴 수도 없고 난처한 경우가 많다. 윗놀이를 하는 도중에 겨우 먹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제1호 도심공원 탄생

포천시내 중심지 시민 휴식공간 연내 조성

금년말이면 포천시내 중심지인 신음동 108-2번지 일원(공원빌라 인근)에 체육동호인들과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인 포천체육공원이 탄생된다.

포천체육공원은 체육동호인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체육시설인 인라인하키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운동장 1면과 공원조양광장 및 산책로가 조성되고 아울러 도심내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포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총 21,182㎡(약 6,400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며 2004년 4월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 등 토공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올 12월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조경수 식재 등 잔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내 인근에는 현재까지 1994년 군내면 하성북리에 조성된 청성문화체육공원이 많은 시민들

의 사랑을 받으며 연중 이용되고는 있지만 포천시내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시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가지 중심에 추진 중인 포천체육공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분들이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내지역의 체육동호인 등 많은 계층의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은 물론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각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금년말이면 포천시내 중심지인 신음동 108-2번지 일원에 체육동호인들과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인 포천체육공원이 탄생된다.(사진은 체육공원 조감도)

전기안전관리 등불...!!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변압기 정밀점검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